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정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미지 차용과 시각적 왜곡에 의한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민 호

이미지 차용과 시각적 왜곡에 의한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정 정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민 호

인 준 서

김민호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로 개인을 넘어 사회집단을 이루고 살아간다. 집단의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이 인정하거나 복종하는 권위를 필요로 하기도 하며, 상호 간의 작용과 소통을 위하여 협력하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하지만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은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집단 속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고립되어 고독해지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본인도 이와 같은 물질 만능 주의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양극화로 인한 사회의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불편한 현실 속에서 본인은 현실과의 괴리감을 경험하여 현실의 세계를 왜곡하고 상상의 세계를 만들었다.

본인은 작품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인간의 불안과 심리적 갈등에 주목하였고 소외되고 고립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소용돌이치는 내면의 표현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과 갈등을 불상과 같은 종교적인 이미지와 대중화된 이미지를 차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정형적인 형태로 변형한 후 입체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형으로 인하여 색과 형태의 구조가 흐트러지고 일그러지는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미지로서의 미술작품을 변형된 이미지로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신념과 가치를 풍자하고 시각적 왜곡으로 은유된 현대 사회의 이면에 내재된 정신적 왜곡과 그 의미를 모색하려 한다.

본 논문은 2016년 석사학위 청구전에서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첫 번째, 형상 왜곡을 통한 작품 형성 배경을 서술하였고, 이미지의 재구성을 통해 인간의 갈등이 풍자적 시각으로 다뤄지는 방식을 서술하였다. 두 번째, 평면회화의 표현방식으로 사용된 형태와 색채의 구성을 서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인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제작방법을 분석해보았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배경	3
1) 매체의 발달로 인한 소통문화의 변화	3
2) 불안한 감정에서의 갈등과 왜곡	4
2. 작품의 표현방법	7
1) 왜곡된 이미지의 형태와 구성	7
2) 작품에서의 색채	9
3. 작품 분석	11
III. 결론	32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왜곡-아미타불과지장보살, FRP, 106x40x135(cm), 2016	11
【작품 2】 왜곡-관음보살상1, FRP, 53x26x47(cm), 2016	13
【작품 3】 왜곡-관음보살상2, FRP, 39x40x52(cm), 2016	15
【작품 4】 왜곡-백제관음상, FRP, 115x120x240(cm), 2016	17
【작품 5】 왜곡-반가사유상, FRP, 30x26x44(cm), 2016	19
【작품 6】 왜곡-소조불두, FRP, 42x58x87(cm), 2016	21
【작품 7】 왜곡-미인도, 비단에수묵담채, 60x129(cm), 2016	23
【작품 8】 왜곡-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FRP, 175x180x20(cm), 2016	25
【작품 9】 왜곡-피리부는소년, FRP, 116x65x146(cm), 2016	27
【작품10】 왜곡-군인사열, 우레탄, 76x76x17(cm), 2016	29

I. 서 론

인류는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무한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미지가 기록되고 생산된다. 그 이미지들은 대중매체에 의하여 복제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며 복제하고 전달하는 매체의 기술적인 간섭과 영향으로 이미지의 본질은 무의미해지거나 변형, 변질, 왜곡된다.¹⁾ 본인의 작품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정화되고 정형화된 사물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변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변형은 어릴 적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장을 흐트러뜨리거나, 책과 벽에 낙서하는 행위 그리고 장난감 로봇과 인형의 목과 팔, 다리를 돌리고 꺾는 등의 놀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한 변형의 행위는 대중매체 속 이미지와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의미로 확장되었다.

엘렌 디사나야케(Ellen dissanayake)는 「예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What is Art for?」(1990)에서 예술은 “무언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일(special making)”²⁾ 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곧 예술의 중요한 대상, 활동, 현상, 감정, 결과에 대한 기록이며, 이러한 기록들은 예술작품으로 확장되며, 현대사회의 모순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은 이미지를 메시지로써 사용하여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미지를 작품화하는 과정에서 대중매체의 왜곡 현상을 작품에서의 형상의 왜곡으로 표현하였다. 왜곡된 표현은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것 즉, 소용돌이치는 내면의 갈등이 형태와 색채의 변형으로 드러남으로써 본인이 경험한 현대사회의 정신적 왜곡을 표현하였다. 또한, 형태가 왜곡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운동감은 시간의 흐름과 내, 외면의 갈등, 그리고 정보의 불확실한 소통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1)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역사 외』, 길, 2016, pp.46-47

2) 엘렌 디사나야케, 『예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연암서가, 2016, p.273

본 연구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형성배경과 표현방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왜곡의 배경과 왜곡된 이미지를 어떻게 작품으로서 표현하고 발전되어야 할지 생각하고, 그 접근 방식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둘째, 본인 작품의 형태와 색채의 특징, 의미, 제작방법에 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매체의 발달로 인한 소통문화의 변화

산업이 고도화되어 정보가 대중화되고 그 정보와 이미지를 일반 대중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합하여, 변형하고, 왜곡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본인은 스무 살 남짓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통적인 관심과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두고 대중적으로 공론화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그 이전에는 기껏해야 공공의 사물들과 화장실, 학교,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 낙서하기, 학생복과 교과서 제목에 덧칠하여 변형하고, 졸업사진이나 개인적인 사진에 그림 그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그 유희를 찾아볼 수 없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하고 발전한 이면에 숨겨진 권위적인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행위도 사소한 낙서와 같은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³⁾ 등의 활성화로 개인의 가상공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과는 반대로 일상에서는 개인이 고립되어 있다. 충남대 연구진이 발표한 ‘페이스북 이용과 대인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한·미 문화 간 비교 연구’ 논문에서 한국인 181명, 미국인 175명 등 총 356명을 대

3) 온라인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이다. 미국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한국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같은 1인 미디어와 정보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검색하는 데 SNS를 이용하고 있다. SNS, 네이버 지식백과시사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상으로 자아개념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보다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이 높지만, 독립적 자아개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 불안지수도 미국보다 130명이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 SNS를 이용한다.”고 대답했다.⁴⁾ 하지만 고립된 개인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오류와 왜곡을 비판하고 비난한다. 과거 전단, 신문, 대자보 등 아날로그 시대의 정보 수집은 매우 수동적이고 단일적이라면 지금은 SNS의 사용과 동시에 양방향 소통구조로 정보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보다 쉽게 대중의 정보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능동적인 사고를 유도한다. 그러나 이런 SNS는 익명이라는 얼굴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사실 여부의 확인 없이 배포하고 도배하는 일회적인 활동을 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고, 맹목적으로 불확실한 정보를 믿고 따르게 된다. 결국, 정보의 왜곡은 수요자의 이념과 태도에 따라 성격이 다양화되고 정보가 보편화 되면서 새로운 정보로 왜곡되고 재생산된다.

본인은 이와 같이 재생산되어 다양화된 정보의 교류 과정에서 소통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왜곡된 정보의 재생산을 보았고, 이는 사춘기 시절의 불안과 갈등이 왜곡을 통하여 소용돌이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낙서에서 출발한 이미지들의 변형은 인간과 사회의 모순과 본질을 의식하여 보이지 않는 이면을 재인식하고 우리의 일상을 성찰하는 기능을 갖는다.

2) 불안한 감정에서의 갈등과 왜곡

왜곡은 본질이 흐려져 주변의 사물과 현상이 변질하는 것의 표현이다.⁵⁾ 그

4) 이지은, 성동규, 『페이스북 이용과 대인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한,미 문화 간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p.257

5)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pp.343-344

리고 미술 작품에서는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변형하여 왜곡시킴으로써 갈등하고 고뇌하는 인류의 해학적인 면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왔다. 왜곡은 사물과 시선 사이에서의 물리적, 기술적, 자연적 현상에 의해 생겨 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시각적 왜곡 속에는 정신적 왜곡이 내포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신적 왜곡은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와 같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가족은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의한 가족 구성원 간의 불안정이 내적 불안으로 형성되어 자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불안한 감정에서의 갈등과 왜곡은 나와 남 사이에 경계를 짓게 하였다.

두 개 이상의 다른 성질이 만날 때 생기는 경계는 정체성(identity)과 타자성(otherness)의 구분이라고 말한다.⁶⁾ 경계가 모호해질 때 즉, 정체성과 타자성이 모호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경계를 인식하거나 보호해줄 수 없다고 하며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공격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⁷⁾ 이러한 공격성은 나와 남의 경계를 의식하여 생긴 불안들을 사물이나 이미지를 변형하여 왜곡하는 심리의 표현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갈등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신적 왜곡의 표현은 과거 예술가들의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실 세계에 대한 풍자와 비판 그리고 이상적인 것에 대한 동경, 인간의 내적인 불안감과 심리상태 등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뭉크(Edvard Munch)의 <절규>, 피카소(Pablo Ruiz Picasso)의 <우는 여자>,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기억의 지속> 등에서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이 작품 속 대상의 왜곡된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왜곡된 표현은 작가의 경험을 통해 내재된 갈등이 작품을 통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다.

6) 고창수, 『한국어 문학의 경계와 정보학』, 국어국문학회, 2011, p.29

7) 권수영, 『한국인의 관계심리학』, 살림, 2007, p.38

본인의 작품도 본인의 주관적 감정이 반영된 왜곡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고충환은 본인의 전시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왜곡을 설명한다.

표현주의에서 표현은 원래 속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분출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음속 격량이 말하자면 표현인 것이고, 그것이 외화 될 때 멀쩡한 형태를 왜곡시키고 알만한 사물대상도 낯설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어쩌면 겉보기와 다른 사물대상의 이면을 읽게 해주고 행간을 독파하게 해주는 적극적인 독서의 한 형태이다.⁸⁾

본인이 작품에서 사용한 동, 서양 고전 작품 이미지와 기타 상징적 이미지들은 어릴 적 정신적인 갈등에 의한 습관으로 사물을 정렬하여 줄 세우고 다시 흐트러뜨리던 사물들을 대체한 이미지들로서 본인의 불안과 갈등의 감정이 은유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예술작품을 이미지로 ‘차용’⁹⁾하고 왜곡시킴으로써 본인의 작업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미지의 차용은 리차드 해밀턴(Richard Hamilton)의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의 대중광고 콜라주와 앤디 워홀(Andy Warhol Andrew Warhola Jr.)의 <Campbell’s soup>에서 수프 깡통을 차용한 경우처럼 현대사회에 대한 감정의 표출이자 전통작품의 지적 소유권에 도전하고 독창성에 대한 승배를 비웃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되며,¹⁰⁾ 예술의 가치와 시간성을 관람자로 하여금 의식하게 하고 성찰의 시간을 제

8) 고충환, 『춤추는 기운』, 김민호전, 2016, 이즈갤러리, pp.2-3

9) 차용[借用, appropriation], 빌려온다는 의미의 차용은 미술사, 광고, 미디어 등에 이미 등장한 형상을 가지고 새로운 형상과 합성시켜 또 다른 작품을 창조하는 제작방법을 가리킨다. 차용이 하나의 방법론인 만큼 그 방식과 의미는 그것을 사용하는 작가들만큼이나 다양하지만 현대미술에서 특징적인 것은 점차 차용한 요소 및 ‘차용’ 원리 그 자체가 작품의 본질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년, p.429

10)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년, p.429

공한다.

2. 작품표현방법

1) 왜곡된 이미지의 형태와 구성

본인의 작품에서는 동, 서양의 미술작품과 군인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불교의 이미지인 불상과 불화를 차용하였다. 불상이란 부처를 조각한 상이다. 부처, 곧 붓다(Buddha)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 있으며¹¹⁾, 깨달은 자의 관조적인 표정과 불교 교리의 종교적인 규범을 기준으로 비례, 자세, 동작, 표정, 복장, 소품 등의 양식을 오랜 시간 동안 내포하고 있는 도상적 표현은 사실적인 형태의 서양 신(神)의 모습과 차별된다. 본인 작품에서 깨달은 자인 부처의 형태를 왜곡시킴으로써 신(神)도 역시 갈등하고 고민하는 존재임을 표현하며, 종교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다루고자 하였다.

작품과정에서 차용된 이미지를 포토샵 왜곡 도구를 사용하여 본인의 의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왜곡하였고, 그것을 참고로 평면상에서 드로잉을 한 후, 왜곡, 변형하여 형상화하였다. 형상화된 이미지의 형태는 크게 왜곡되지 않은 부분과 왜곡된 부분으로 나뉘며, 평면의 왜곡되지 않은 부분을 입체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주관에 의한 왜곡이 개입되었다. 또한, 왜곡을 위하여 획득한 이미지의 질과 양은 재생산되는 이미지의 세부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본인이 획득한 이미지의 질과 양이 곧 현실이며, 부정확한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 역시 이미지의 복제와 변형 및 왜곡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 강우방, 『불교조각1』, 솔, 2003, p.43

평면의 입체화 과정에서 오는 형태의 변형과 왜곡은 소실점을 기준으로 하는 규칙을 따르는데, 소실점은 원근법과 역원근법을 표현하기 위한 회화적 재현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본인 작업에서 왜곡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한다. 소실점으로부터 시작되는 형태의 왜곡은 형태 안쪽 즉,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형태 밖, 외부공간의 특정한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눈다. 이것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외부의 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시작되는 갈등을 말하는 것으로, **【작품 1】**, **【작품 2】**, **【작품 7】**은 소실점이 형태의 안쪽에서 시작되고 있으므로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갈등이라 말할 수 있고, **【작품 3】**, **【작품 4】**, **【작품 5】**, **【작품 6】**, **【작품 8】**, **【작품 9】**, **【작품10】**은 소실점이 외부공간의 특정한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 외부의 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시작되는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왜곡에 의한 생성과 소멸을 소실점의 확장과 축소로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변민과 존재의 비의를 말하고자 하였으며 부처의 관조적인 표정과 대비가 되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관조적이고 명상적인 부처의 얼굴이 소실점이 됨으로써 갈등보다는 황당함과 유머로 읽히기도 한다.

명화시리즈 역시 소실점과 원근법을 적용하였는데, 이 시리즈의 원작품은 회화의 표현법 중 하나인 원근법이 이미 적용된 상태이다. 원작에서의 원근법은 삼차원의 공간을 평면으로 옮기는 사실적 표현을 위한 재현의 기법으로 사용하였고, 본인 작품에서의 원근법은 재현하고자 하는 원작의 형태를 변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형상의 변형과 왜곡은 원본의 복제, 그리고 복제의 왜곡과 왜곡의 재현으로 재생산의 과정이 진행된다. 본인은 원작품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비틀어버림으로써 이상화, 동경화 되었던 대상들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였고, 이미지를 본인과 동일시하여 본인의 심리적 갈등을 작품에 내포하여 또 다른 관점을 이끌어 내어 인식의 틀을 변화시키는 재성찰을 시도하였다.

2) 작품에서의 색채

본인 작품에서의 색채는 현실에서 비현실로, 실상에서 허상으로와 같이 어떠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움직임을 더욱 강조하는 데 있다. 원래의 형태에서 물리적인 힘에 의한 변형과정은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고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는 것이다.

본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불안과 갈등 그리고 불안에 대한 소심한 표출은 본인 작품에서의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물질을 당겨서 늘이고 밀어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성의 변화를 통해 색과 형태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게 하고 싶었으나 기술과 재료의 한계를 경험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본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형태를 왜곡시키고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형태를 재현했다. 왜곡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부분적인 확대, 축소에 의한 변형은 왜곡전개과정에서 색의 분열에 의한 훼손된 형태로 재구성된다. 왜곡되는 부분이 뒤틀리고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색의 채도와 명도가 변하여 우연적인 효과가 일어나며, 불분명한 형태와 색에 의하여 몽환적인 느낌이 나타난다. 하지만 반대로 관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아 왜곡되지 않은 부분은 왜곡된 부분과 대조되어 심리적 갈등이 표현된다.

사진은 카메라의 기종, 시간대, 촬영자의 기술, 화질보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매체를 통한 복제, 전달과정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생긴다. 본인이 수집한 복제된 원형 이미지의 화질과 색상을 기본으로 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채색하는데 변형, 왜곡되지 않는 부분과 왜곡이 되는 부분이다. 각각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색은 왜곡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경계에서 바림(gradation, 보카시, 초점흐리기) 기법으로 연결하고, 무한 반복하여 색을 중첩한다.

위와 같이 복제하여 재현, 모방하고 다시 변형, 왜곡하는 채색과정에서의 다양한 변화는 이미지 속에 있는 수많은 픽셀의 움직임이며, 감정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그 감정의 흐름은 작품에서의 왜곡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두 개의 다른 개념을 구분 지으며 색감의 대비를 통하여 각각의 감정을 구분해주고 그 경계부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극대화된다.

3. 작품분석



【작품 1】 왜곡-아미타불과지장보살

【작품1】 왜곡-아미타불과 지장보살

제작년도 : 2016년

작품크기 : 106x40x135(cm)

작품재료 : F.R.P, 스탠봉, 아크릴 물감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 명화를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왜곡틀로 변형하여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 한다.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3.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4. 포토샵으로 왜곡한 원작사진을 보면서 아크릴 물감으로 도색한다.
5. 원작에 있는 지팡이는 스탠봉에 스탠조각을 모양을 내며 용접 후 연마작업으로 다듬고, 작업에 맞게 아크릴 물감으로 도색한 후 고정한다.

작품설명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은 평면 이미지로서 고려 시대 불화의 특징인 화려하고 선명한 색채를 사용하였고 인물의 단순화와 반복적 패턴의 사용으로 종교의 심오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본인은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이미지를 본인 또는 인간으로서 의인화하여 풍자하는 것으로 출력물로서의 복제된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변형, 왜곡하였다. 본인은 아미타불과 지장보살 사이의 왜곡된 형상을 소용돌이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두 존재의 미묘한 갈등과 충돌을 표현하였다. 종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예배대상으로 제작되었지만 본인의 상상에 의하여 의인화된 이미지는 인간의 감성을 지녔을 것이므로 두 인격 역시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이다.



【작품2】 왜곡-관음보살상1

【작품2】 왜곡-관음보살상1

제작년도 : 2016년

작품크기 : 53x26x47(cm)

작품재료 : F.R.P,아크릴 물감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 명화를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왜곡틀로 변형하여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 한다.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3.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4. 포토샵으로 왜곡한 원작사진을 보면서 아크릴 물감으로 도색한다.

작품설명

불상은 최초 간다라 불상을 시작으로 굽타시기에 인도 불교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중국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시대와 왕조에 따라 절대자의 자애로움, 위엄, 이상적인 인간상을 강조하거나 자세, 비례와 같은 양식적 차이에 의한 변형을 보인다. 종교라는 일관된 이념이 전달되더라도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되어 표현된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재롭게 관조하여 보살핀다는 뜻이 있다. 이와 같이 초월한 존재도 인간적인 내면의 고민을 하고 있음을 왜곡의 표현으로 보여준다.



【작품3】 왜곡-관음보살상2

【작품3】 왜곡-관음보살상2

제작년도 : 2016년

작품크기 : 39x40x52 cm

작품재료 : F.R.P, 철가루, 아크릴 물감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 명화를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왜곡틀로 변형하여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 한다.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3.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4. 철분가루를 투명 락카페인트와 섞은 후 페인트 붓으로 찍듯이 바른다.
5. 부식용액으로 철분가루를 부식시킨다.
6. 원작사진을 보면서 아크릴 물감으로 도색한다.

작품설명

중세시대의 성화상과 불교의 불상과 같은 상징적인 이미지는 물리적인 물체로서 단순히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대상에 대한 신심의 고취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교리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그것을 상기시키는 목적이 있다. 의인화한 불상의 소실점이자 소용돌이인 왜곡이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는 종교와 종교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인간의 자세에 의하여 종교의 본질이 변한다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작품4】 왜곡-백제 관음상

【작품4】 왜곡-백제관음상

제작년도 : 2016년

작품크기 : 115x120x240(cm)

작품재료 : F.R.P, 아크릴 물감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 명화를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왜곡틀로 변형하여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 한다.
2. 각 파이프를 용접하여 뼈대를 만든 후, 철망으로 전체적인 덩어리를 잡는다.
3.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3.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4. 작품 바닥부분과, 양쪽 날개부분은 따로 캐스팅하여 탈부착이 되도록 한다.
5. 원작사진을 보면서 아크릴 물감으로 도색한다.

작품설명

본 작품은 형태상으로는 소실점을 외부에 둔, 외부로부터의 갈등을 표현한 것이나 다른 작품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머리가 목표물을 향하여 빠져나오려는 듯 아래로 들출되어 있으므로, 내면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 역시 의인화한 것으로 과거 백제인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의 불상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보고자 하는 의지이며, 조국에 대한 향수를 상상하여 표현한 것이다.



【작품5】 왜곡-반가사유상

【작품5】 왜곡-반가사유상

제작년도 : 2016년

작품크기 : 30x26x44 cm

작품재료 : F.R.P, 락카 페인트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 명화를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왜곡틀로 변형하여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 한다.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F.R.P로 캐스팅한다.
3.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4. 락카 페인트로 도색한다.
5. 천에 부식용액을 발라 원하는 부분을 문지르면서 색을 맞춰간다.

작품설명

인간은 물질의 풍요와 그것의 소비에 익숙해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내면의 공허함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대화된 경제구조의 사회 속에서 무력감에 초라해진다. 고도화된 과학기술과 산업발달은 인간에게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소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본 작품에서의 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이 미륵불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먼 미래를 생각하며 명상에 잠겨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명상에 잠긴 미륵보살 또한 인간사에 묻혀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왜곡된 표현으로 보여 준다.



【작품6】 외곡-소조불두

【작품6】 왜곡-소조불두

제작년도 : 2016년

작품크기 : 42x58x87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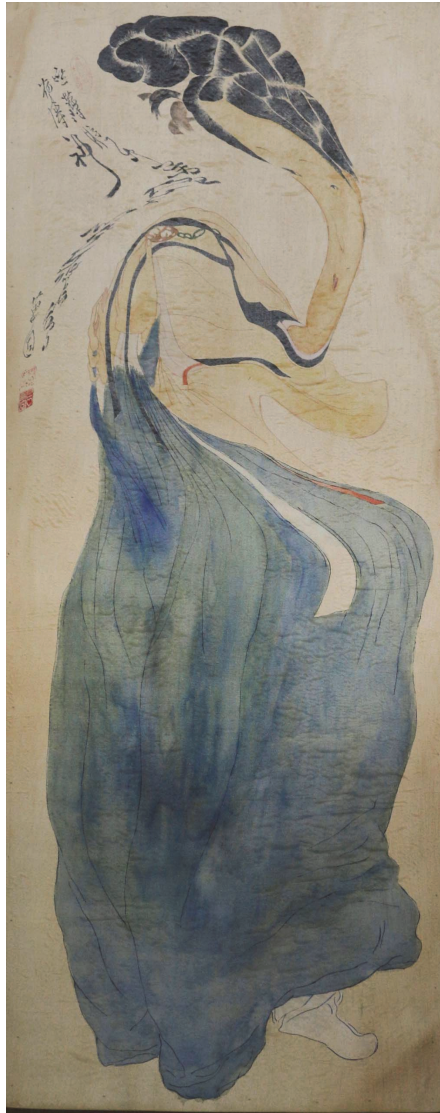
작품재료 : F.R.P, 철가루, 락카 스프레이, 아크릴 물감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 명화를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왜곡틀로 변형하여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 한다.
2.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3.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4. 아크릴 물감으로 전체적으로 채색한다.
5. 철가루와 투명 락카 스프레이를 섞어 페인트 붓으로 바른 후, 부식용액으로 부식한다.

작품설명

불두는 부처의 머리이다. 전신상에서 머리만 따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막연하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파손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전쟁이나 척불정책 등에 의한 훼손을 추측할 수 있으며, 전달과정에서의 파손으로 인한 왜곡으로서 이 또한 의인화하여 재생산하였다. 불상의 두 눈은 감은 채로 조용히 명상에 잠긴 듯한 얼굴이다. 꿈을 꾸거나, 사색하는 동안의 몰입은 현실에서의 추상적인 관념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 시각적 표현으로 외부에 시작되는 소용돌이에 의해 휩쓸리는 형태를 표현한다.



【작품7】 왜곡-미인도

【작품7】 왜곡-미인도

제작년도 : 2016년

작품크기 : 60x129 cm

작품재료 : 비단에 수묵담채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 명화를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왜곡틀로 변형하여 드로잉 한다.
2. 비단을 염색 후 건조한다.
3. 왜곡한 드로잉을 비단에 그리고 한국화물감으로 채색한다.
4. 채색한 비단은 배접지에 배접 후, 니스 칠 한 액자에 고정한다.

작품설명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미인상을 보여주는 신윤복의 미인도를 왜곡하여 시
간에 의한 가치관의 차이를 설명한다. 조선 시대 미인은 미인도의 웃음기
없고 수줍은 듯한 표정, 노리개를 만지는 자그마한 손, 외꺼풀의 크지 않은
눈, 통통한 볼살, 아담한 키의 균형미에 가치를 둔다. 하지만 현대의 미인은
성형외과 의사들의 기술에 의해 획일화되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인의
대중화로 미인 특유의 고고한 분위기가 사라진 복제된 미인이 넘쳐난다. 현
실에서 본인이 작품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행위이
며, 도시의 여자들이 얼굴을 왜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
는 현실을 표현한다.



【작품8】 웨곡-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작품8】 왜곡-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제작년도 : 2016년

작품크기 : 175x180x20(cm)

작품재료 : F.R.P, 유화 물감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 명화를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왜곡틀로 변형하여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 한다.
2. MDF를 원하는 작품사이즈로 맞춰 작업대에 고정한 후 작업드로잉을 한다.
3. 유토가 떨어지지 않도록 드로잉부분에 타카로 그물망을 고정한다.
4. 유토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5. 원하는 모양이 나오도록 표면을 사포로 연마한다.
6. 원작을 참고하여 유화물감으로 도색한다.
7. 벽에 고정이 되도록 ㄱ앵글을 고정한다.

작품설명

지금과 같이 사진과 영상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의 화가가 그린 그림은 사진을 대신 하였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담았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과장과 왜곡의 경우도 있다. 나폴레옹은 자신을 선전하는 방법으로 화가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고 프랑스 시민들에게 자유와 평등, 박애의 가치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최근까지 나폴레옹이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되어야 하느냐 독재자로 비난받아야 하느냐? 에 대한 평은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본인은 영원한 힘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복제된 이미지를 부조의 형식을 사용하여 원근법이라는 시각표현방식에 의하여 절대적인 권력이 사라지는 과거임을 표현한다.



【작품9】 왜곡-피리부는 소년

【작품9】 왜곡-피리부는 소년

제작년도 : 2016년

작품크기 : 116x65x146 cm

작품재료 : F.R.P, 유화 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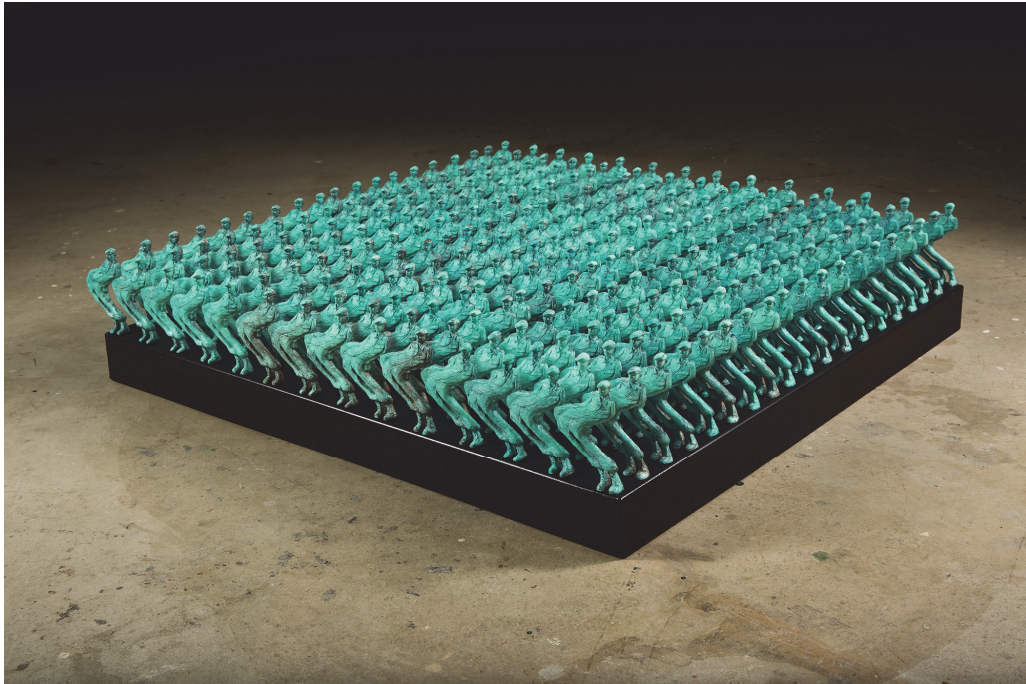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 명화를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왜곡틀로 변형하여 드로잉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수집하여 정리 한다.
2. 반생이와 각나무로 인체뼈대를 만든다.
3. 흙으로 제작된 작품을 석고와 F.R.P로 캐스팅한다.
4.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5. 포토샵으로 왜곡한 원작사진을 보면서 유화 물감으로 도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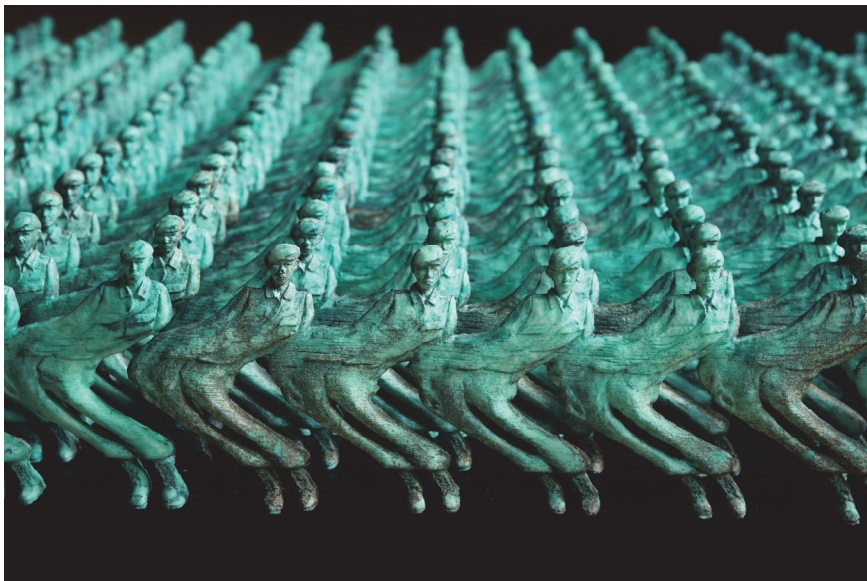
작품설명

마네는 여성모델 ‘모렝’을 모델로 하여 소년을 그렸다. 또한, 배경이 없는 공간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은 평면적인 묘사임에도 특유의 공기를 감싸는 듯한 표현으로 인해 오히려 조각 적이며, 피리 소리까지 들리는 듯하다.

본인은 이미지를 소리의 진행 방향으로 왜곡시켜 피리 소리가 공간에서 흐르는 표현을 한다. 인상주의 화가인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은 원근법적인 공간표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입체화 과정에서 색과 형태의 왜곡된 표현을 하게 된다.



【작품10】 왜곡-군인사열



【작품10】의 부분

【작품10】 왜곡-군인사열

제작년도 : 2016년

작품크기 : 76x76x17 cm

작품재료 : 우레탄, 철판, 부식용액

제작방법

1. 전체적인 형태는 합성한 군인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왜곡틀로 변형하여 드로잉을 한다.
2. 유토로 제작된 작품을 실리콘과 석고로 캐스팅한다.
3. 경질우레탄 주제1:경화제1의 비율에 맞춰서 실리콘틀에 부어 반복 캐스팅한다.
4. 사포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연마한다.
5. 아크릴 물감으로 도색한다.
6. 작품에 자석을 붙여 철판좌대에 고정한다.

작품설명

전체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표현한 것으로 하나의 개체를 완성하여 그것을 복제하고, 다시 복제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군집을 이룬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개인화되고 있는 것에 반해 전체주의는 부분에 대한 전체의 선행성과 우월성을 주장한다. 개인의 의지와는 다른 별개의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분단국가의 비애를 내포하고 있다.

II. 결 론

본 논문은 왜곡된 정서가 인간 내면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였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과 고뇌를 다루고 있다.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수많은 요인 중 불안정한 환경에 의한 왜곡된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소외와 감정을 현실에서의 갈등으로 표현하려 하였으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의하여 형성된 불안정한 심리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그에 따른 정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오늘날 대중매체와 그 이미지는 역사와 사회현상의 흔적이므로 일회적으로 소비하는 가치일지라도 재해석하고 새롭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왜곡된 정서에 의하여 박제화 된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상의 변형으로 시각적인 왜곡을 하여 재구성하였다. 왜곡, 변형을 적용한 부분의 형태와 적용하지 않은 부분의 형태를 설정하여 심리적 갈등의 움직임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며 갈등의 시작점이자, 왜곡표현의 시작점이 되는 소실점 즉, 소용돌이의 위치는 갈등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 자기 내면의 갈등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타인의 갈등 역시 나에게 영향이 온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를 익숙한 명작과 종교적 상징, 군인이라는 익숙한 이미지로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욕망과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자 하였다. 하지만 상징적인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과 표현의 기법으로 사용한 왜곡 이미지의 익숙함은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설명하고 이해하기에 앞서 익숙한 감정에 의한 선입견을 품게 되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

로도 현상에 대한 집요한 관찰과 연구로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년
- 강우방, 『불교조각1』, 솔, 2003
- 고창수, 『한국어 문학의 경계와 정보학』, 국어국문학회, 2011
- 권수영, 『한국인의 관계심리학』, 살림, 2007

2. 번역본

- 엘렌 디사나야케, 『예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김성동 옮김, 연암서가, 2016
-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역사 외』,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2007
- 샹플뢰리, 『풍자예술의 역사』 정진국 옮김, 까치, 2001
- 프란시스 베이컨, 『신기관』, 진석용 옮김, 한길사, 2001
- 폴커슈피어링, 『철학 움니버스』, 정대성 옮김, 자음과 모음, 2007
-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이한음 옮김, 김영사, 2007
- 바버라 오클리, 『나쁜 유전자』, 이종삼 옮김, 살림, 2008

3. 참고논문

- 이지은, 성동규, 『페이스북 이용과 대인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한,미 문화간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4. 홈페이지 및 기타

- 고충환, 『춤추는 기운』, 김민호전, 2016, 이즈갤러리
- 네이버 지식백과시사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ABSTRACT

An expression study by the image borrowing and the visual distortion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

Kim, Min ho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nkind living in the unprecedented plentiful era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and change of the modern society is the social animal who cannot live alone and forms the social group beyond the individual. They also need an authority that components admit or obey for the maintenance of the group, and form a structure of cooperating, competing, and conflicting for th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However, individuals are rather alienated, isolated, and become solitary in the group as members of the social group due to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caused by the social polarization. The researcher also experienced the side effect of the society by the polarization in the social structure in this materialism era. The researcher experienced a gap from the reality in this uncomfortable

reality and distorted the world of reality and made a world of imagination. The researcher's work focused on the anxiety and psychological conflict of the human being embarrassed and worried, and showed the mental stress of being alienated and isolated through the expression of the swirling inside. After transforming this psychological anxiety and conflict into the non-programmed form by borrowing the religious image such as the statue of Buddha and the popularized image and by using the computer program, they were embodied in three dimensions. The effect that the structure of the color and form was messy and distorted due to this transformation was maximized.

This study was intended to sacrifice the faith and value of the human living in the modern society by restructuring the artwork as the image into the transformed image, and to seek the meaning of the mental distortion inherent on the hidden side of the modern society compared to the visual distortion.

This thesis is composed as follows focusing on the work announced in the 2016 master's degree request exhibition.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the study direction and purpose of the researcher's work were described.

In the body of chapter 2, the work formation background through the shape distortion was described, and the way to handle the human's conflict by the satirical view through the reconstitution of image was described. Second, the constitution of the form and color used as the expression method of the plane painting was described,

and the formative nature and the production method of the researcher's work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is.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the content of this thesis was organized and the future work direction was suggested.